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한국어 헤지(Hedges) 표현과 그 특징

최운향*

I. 서론

본고는 신문 기사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국어 헤지 표현(Hedge Expression)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헤지는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1941~)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명제의 진리치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 장치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헤지 표현을 정리하고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헤지 표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신문 기사에서는 헤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일반적인 헤지 사용의 동기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신문 기사는 특성에 따라 사실보도에 중점을 둔 스트레이트 기사(straight news), 사건이나 인물에 심층적 의견을 제시하는 피처 기사(feature)와 특정 사안에 가치를 부여하는 에디토리얼(editorial) 등으로 분류된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도 텍스트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에디토리얼이나 일부 스트레이트, 피처 기사에서는 기자의 판단이나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신명선·박재영 2004: 41, 박종화 2003: 59-75). 특히 에디토리얼로 분류되는 칼럼, 사설 등은 중요한 사안에 비판적 견해나 해결책 등을 제시하여 헤지 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텍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

트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헤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살펴 한국어 헤지 표현을 정리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는 국내 일간지로서 현재 판매 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신문 〈조선일보〉, 진보 성향 언론의 대표인 〈한겨례〉와 경제 전문 신문 〈매일경제〉를 선정했다(‘전국 일간지, 유료·발행 부수 감소’, 연합뉴스, 2012. 12. 14). 연구를 위해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 언론사에서 나온 사설을 분석해 헤지 표현을 찾아 분석했으며, 다른 텍스트와 비교해 헤지의 특징을 정리했다. 비교를 위해서는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신명선(2006), 신영주(2011), 이준호(2012) 등의 연구와 대통령 취임사를 중점적으로 다른 유동엽(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II장에서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특정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헤지 표현 연구를 기반으로 헤지 표현을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분류를 바탕으로 신문 기사에서 헤지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헤지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동기를 헤지 표현이 수행하는 역할과 연결해 해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텍스트와 사설에서 헤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고, 사설의 특징과 성격을 밝혔다.

II. 헤지 표현의 개념과 분류

1. 헤지 표현의 개념

헤지(Hedges)란¹⁾ Lakoff의 글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그의 설명에

1) ‘울타리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울타리’는 영한사전에서 ‘Hedge’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한국어 대응어일 뿐이다. 위험과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Hedge’의 또 다른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외국어지만 ‘헤지 표현’을 Hedge expression의 한국어 번역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르면, 자연언어를 바탕으로 한 명제는 명백한 참, 거짓으로 나뉘기보다 사실의 정도(degrees of truth)에 따라 불분명한 진리치를 가진다. 이때 참과 거짓의 사이에 존재한 명제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는데(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fuzzier or less fuzzy), 이를 헤지라고 부른다. 명제의 진리치를 조절하는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 사실의 정도에 따른 명제(Lakoff 1973: 460, 471-472)

- 가. A robin is a bird. (참)
- 나. A chicken is a bird. (참이나 '가'보다는 정도가 덜함)
- 다. A penguin is a bird. (참이나 '나'보다는 정도가 덜함)
- 라. A bat is a bird. (거짓, 참에서 매우 멀)
- 마. A cow is a bird. (거짓)

(2) 헤지가 들어간 명제

- 가. A robin is *sort of* a bird. (거짓, 울새는 의문의 여지없이 조류이므로)
- 나. A chicken is *sort of* a bird. (참, 참에 매우 가까움)
- 다. A penguin is *sort of* a bird. (참, 참에 가까움)
- 라. A bat is *sort of* a bird. (거짓에 가까움)
- 마. A cow is *sort of* a bird. (거짓)

(1)은 조류라는 범주의 모호성 때문에 명제가 다양한 진리치를 가지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 울새(robin)은 가장 전형적인 조류로서 울새가 조류라는 명제는 가장 강한 참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닭, 펭귄 등 조류로서의 전형성이 떨어지는 대상이 포함될 때 명제는 여전히 참이긴 하지만 (1)-가 명제에 비해 낮은 진리치를 가지게 된다. 박쥐는 동물분류학적으로 포유류 박쥐 목에 속해 조류는 아니지만,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류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1)-라 명제는 거짓이지만 적어도 명백한 거짓에 비해서는 참에 가깝다. 소는 분류학적으로도, 생김새나 성질의 측면에서도 조류와 전혀 다른 동물이므로 (1)-마는 제시된 명제 중 가장 거짓에 가깝다.

제시된 명제에 헤지 ‘*sort of*(일종의)’를 넣으면 명제의 진리치가 조정된다. (1)-나, 다 명제는 *sort of* 때문에 진리에 더욱 가까운 명제로 전환되며, 여전히 거짓이지만 (1)-라 역시 참에 가까워진다. 반면 명백한 진리 명제에

붙은 sort of는 오히려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놓고, 명백한 거짓 명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헤지 사용의 동기나 헤지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Prince, Frader, and Bosk(1982)에서는 헤지를 approximator와 shield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approximator란 명제의 진리치를 조절하는 것이며, shield는 화자가 명제의 진리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때 나타난다(신명선 2006: 155). (3)-가에서는 sort of가 ‘파랗다’의 의미를 확장하여 명제의 진리치를 직접 조절한다. 반면 (3)-나 문장의 ‘I think’는 ‘그의 발이 파랗다’는 문장의 의미를 화자의 판단 결과로 한정한다. 이때 헤지 표현은 명제에 단정적인 언급이나 판단을 피하고 싶은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 (3) 가. His feet were **sort of** blue, (approximator)
 나. I **think** his feet were blue, (sh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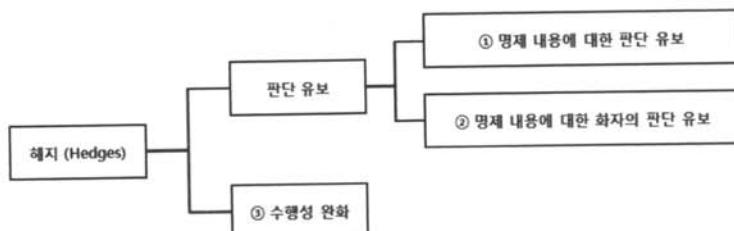
Brown and Levinson(1987)은 헤지가 공손전략의 하나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해’나 ‘그것은 다소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말하면 청자의 체면을 덜 해칠 수 있다(신명선 2006: 158). 이 때 사용된 ‘방향’, ‘생각하다’, ‘다소’ 등의 표현은 청자에게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되 청자의 체면을 지켜주는 헤지 표현이다.

K. Hyland는 영어 학술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헤지 표현에 대해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Hyland(1998)에서는 헤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다양한 학술 텍스트를 바탕으로 헤지 표현을 분류했다. 이 연구에서는 헤지를 “필자가 명제를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제시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며 그것이 인지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했다(신영주 2011: 9).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헤지 표현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선행연구 대부분은 헤지 표현 자체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텍스트에

서 볼 수 있는 헤지 표현을 정리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헤지 표현의 특징을 밝힌 연구가 많다. 영어 논문을 대상으로 헤지 표현의 특징을 서술한 Hyland의 연구 때문일 것이다. 해당 담화 공동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술 텍스트는 헤지 표현이 자주 나타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 취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으나, 헤지 표현과 관련된 부분은 논문의 일부이다. 신문 기사나 사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헤지 표현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술 텍스트에 나타나는 헤지 표현 연구로는 신명선(2006), 신영주(2011), 이준호(2012)가 있으며, 모두 논문 서론에 나타나는 헤지에 주목하고 있다. 논문 서론은 선행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연구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 부문이므로 헤지 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신명선 2006: 153).

신명선(2006)은 국어학, 국문학 관련 논문 서론에 헤지를 유발하는 표현을 정리하고 특히 헤지를 사용하는 동기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한국어 헤지 표현으로 언급되던 수동태, 간접 인용 외에 선어말어미 ‘-겠-’, 의존명사 ‘수’, 부정 표현, 한정 표현, ‘-중의 하나’ 등이 헤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지목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헤지는 모호성을 나타내거나 청자에게 공손함과 자신의 태도, 생각 등을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은 독자를 필자의 논지로 쉽게 끌어들여 연구자의 의견에 강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특히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변치 않는 진리란 없으므로 헤지는 절대성을 떨어뜨리면서 학술 텍스트의 엄밀성을 오히려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신명선(2006)의 헤지 표현 분류

신영주(2011)는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논문 서론을 작성할 때 나타나는 해지 표현에 주목했다. 이후 한국어 모어 사용자의 한국어 논문 (Korean Thesis, KT),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 사용자의 한국어 논문(Chinese Thesis, CT)을 대상으로 해지 사용 양상을 비교했다. 연구에서 저자는 해지 표현을 '필자가 단언하지 않고 가능한 반박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술 텍스트에서 해지 표현은 학자마다 다른 시각을 인정하고 앞으로 있을 반박에 대응하는 임시성 (Tentativeness), 독자 설득을 위한 객관성, 독자의 부정적 반응을 줄이고 동의를 얻기 위한 공손성을 나타낸다.

이준호(2012) 역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해지 표현을 정리했다. 특히 저자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국어학, 국문학 관련 논문 이외의 텍스트로 대상 논문의 주제를 다양화하여 해지 표현을 분석했다. 저자는 해지를 '필자가 주장의 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분명히 검증되지 않은 제안에 조심성을 더하기 위하여, 확신이 있더라도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도적인 언어적 장치'로 정의했다. 학술 텍스트에서 해지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학계에서의 반론 여지를 남겨 두며 독자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외국인이 한국어로 학술 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해지 표현 목록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해지는 주로 '-(으)ㄹ 수 있다', '다/라고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등의 동사+종결 어미 표현으로 실현된다.

유동엽(2007)은 대통령 취임사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에서 해지를 부분적으로 언급했다. 이 연구에서는 해지를 '명제의 진리조건이나 그에 대한 생산자의 판단의 정도성을 조정하는 장치'로 정의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타나는 해지 표현을 분석하여 해지가 표면적으로는 명제의 확실성을 약화하지만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오히려 논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됨을 밝혔다.

대상 언어와 텍스트에는 차이가 있지만 연구마다 해지의 특징으로 지목하는 성질은 대동소이하다. 해지는 필자나 화자가 의도에 따라 명제의 진리치를 조절하는 언어적 장치로서, 명제의 진리치를 약화하는 작용을 하지만 맥

락에 따라서는 논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헤지 표현은 명제 그 자체의 진리치를 조절하거나 명제에 화자의 판단, 생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독자가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효과를 내며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판에 대응하거나 여지를 남기기 위해 확인을 피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2. 헤지 사용의 동기와 헤지 표현 분류

헤지는 필자/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의도를 담은 의미론적 도구이므로 사용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문법적 기준에 따라 헤지 표현을 분류하는 것은 헤지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쉽지 않다. 텍스트의 맥락과 의미에 따라 헤지 표현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같은 표현이지만 문장에 따라서 판이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헤지 표현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 동기에 주목하였다. 특히 사설에서 헤지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를 밝히려면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사용 동기 등에 주목해야 한다.

신명선(2006)은 사용 동기에 따라 헤지 표현을 ① 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유보, ②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 유보, ③ 수행성 완화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헤지가 필자의 의견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형 구분 과정에서 ‘판단 유보’라는 표현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또한 분류 방법을 제시한 뒤 실제로 분류 및 특징을 살피는 대목에서는 ① 가능성과 추측, ② 일반화 방지, ③ 한정, ④ 드러내기-숨기기, ⑤ 전제와 함축, ⑥ 수행성 완화라는 다른 세부 항목을 제시해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후 유동엽(2007) 역시 같은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사의 헤지 표현을 분류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반복하기 않기 위해 ‘판단 유보’라는 표현 대신 ① 판단의 정도성 조정, ② 명제 내용의 주관화, ③ 수행성 완화 세 가지 유형으로 헤지 사용의 효과를 연구했다.

신영주(2011)은 헤지 분류의 기준으로는 Hyland(1998)에서 제시된 것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헤지 표현은 명제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부가적 헤지

〈표 1〉 신영주(2011)의 한국어 혜지 표현 분류

구분	예
부가적 혜지 표현	<p>① 모호의 혜지 표현 거의, 다소, 비교적, 어느</p> <p>② 부정청의 혜지 표현 무슨, 무엇, 어느, 어떤</p> <p>③ 불확실의 혜지 표현 아마(도), 어쩌면</p>
내용 중심 혜지 표현	<p>① 인용의 혜지 표현 -고 +전달 동사 (말하다, 주장하다, 하다 등)</p> <p>② 증거의 혜지 표현 -고 +인지 동사 (생각하다, 여기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해석하다)</p>
	<p>① 판단의 혜지 표현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ㄹ 것 같다, -(으)ㄴ/는/ㄹ 듯하다, -(으)ㄴ/는가 보다, -(으)ㄹ 것이다, -(으)ㄹ 법하다, -(으)ㄹ 수 있다, -(으)ㄹ까 생각하다, -(으)로 보다/보이다, -아/어/여 보이다, -겠-, 가능하다, 가능성/추측/추정하다, 의의가 있다, 짐작하다, 필요성이 있다, ‘부정표현 + 혜지’ 등</p> <p>② 객관화의 혜지 표현 본고, 본 연구, 연구자, 우리</p>

표현과 내용에 직접 관여하여 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 중심 혜지로 나뉜다. 내용 중심 혜지 표현은 정확성 중심 혜지 표현과 명제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필자 중심 혜지 표현으로 구분된다.

부가적 혜지 표현이란 대체로 ‘거의, 다소, 어느’ 등의 부사, 관형사 형태로 필자가 자신의 진술을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명제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정확성 중심 혜지는 인용이나 앞에서 언급된 증거를 토대로 필자가 주장을 펼칠 때 나타난다. 필자 중심 혜지 표현이란 필자가 중요하지만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주장을 할 때 주로 나타난다. 필자는 주장을 펼칠 때 자신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줄이기 위

해 단정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필자 중심 헤지 표현이라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어 헤지 분류 방법으로 헤지 사용의 동기와 영향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두 가지 분류 방법이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신명선(2006), 유동엽(2007)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명선(2006)의 방법을 참고한 것은 신영주(2011)의 기준이 사설 속 헤지 표현을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아마도’, ‘어쩌면’ 등의 ‘부가적 헤지 표현’은 격식체 문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구어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거의’, ‘비교적’ 등은 가끔 나타나기도 했지만, ‘내용 중심 헤지 표현’이라는 범주만으로 헤지를 분류하는 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

물론 신명선(2006)의 분류 기준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에는 객관성을 높여주는 헤지 표현이 정확히 분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동기와 효과에 따라 ‘수행성 완화’는 따로 분류했지만 ‘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유보’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 유보’ 두 부문은 또 다른 기준을 추가로 사용해 분류했다는 점도 문제이다. 유동엽(2007)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화 장치를 ‘수행성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동기에 따라 헤지 표현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명선(2006), 유동엽(2007)의 분류 방법을 적용하여 사설에 나타나는 헤지 표현을 정리했다.²⁾

2) 신명선(2006)의 분류 방법이 형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영주(2011)는 역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분류 과정에서 표현의 형태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신명선(2006)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헤지 표현은 의미론적 장치이며 같은 형태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는 헤지 표현의 분류와 특징

1. 판단의 정도 조절

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정도를 조절하는 헤지는 사설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헤지 표현이다. 사설에서는 특히 도입부에 자주 나타난다. 판단의 정도를 조절하여 사실을 정확히 나타내는 일이 특히 사설의 첫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설은 사건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뒤 필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에는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의견의 이유, 향후 대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언론사의 주장이 강력한 어조로 제시되며 끝이 난다. 필자가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도입부에서 판단 강도를 조절해야 이해당사자나 다른 언론사, 정부 당국 등의 비판을 방어할 수 있다. 헤지를 사용하면 단정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보다 오보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판단의 정도 조절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고 논지를 조절하여 독자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예시 문장 중 상당수가 도입부에서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사설에서는 주로 가능성과 추측, 부정 표현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1) 가능성과 추측

- 가. 그것조차 안 하고 경제민주화 입법만 몰아세우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일경제, 5월 21일)
- 나. 한국전력이 주민 반대로 중단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한다. 당장 송전탑 공사를 시작해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는 전력 운송에 차질을 빚게 되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매일경제, 5월 20일)
- 다. 아베 총리가 이런 점을 뺀히 알면서도 두 시설의 성격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2차대전의 패전과 그에 따른 도쿄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 5월 20일)

가능성과 추측은 주로 '-ㄹ 수 있다', '-ㄹ 것이다', '예상되다', '-겠.' 등

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1)-가는 ‘경제민주화 입법만 내세운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확인 대신 추측성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논지 강화와 객관적 표현을 위해 ‘국민’이라는 집단 명사를 사용하였지만, 이들 모두가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지나친 확인이다. 필자는 자신의 진술이 지나 치게 강하기 때문에 추측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논지를 약화하였다.

(1)-나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건설 재개를 주장하면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반감을 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피할 수 없다’는 부정 표현으로 송전탑 공사가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는 확인을 피했다. 이해 당사자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손 전략을 취한 것이다. 여기에 ‘-ㄹ 수 있다’는 가능성과 추측을 드러내 ‘불가피하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했다. 이때 헤지 표현은 예상되는 비판과 항의 등을 피하고 공사 재개의 당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1)-다는 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헤지 표현의 역할은 다르다. 다 문장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하고 그의 진술을 재해석하는 대목에서 나타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두 시설의 성격이 같다’는 발언을 했지만, 도쿄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진술은 한 적이 없다. 필자가 자신의 논리에 따라 의미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나온 결론일 뿐이다. 속뜻을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다 하더라도 발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 한 사람뿐이다. 만약 필자가 ‘총리의 발언은 도쿄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작성한다면 발언의 당사자에게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미래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ㄹ 수 있다’는 추측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 문장은 공손 전략과 논리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다 문장은 위험 회피와 논지 약화를 위한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맥락에 따라 같은 형태라도 헤지 표현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정 표현

- 가. 방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서, 이만저만한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겨레, 5월 20일)
- 나. 역사인식 때문에 북한·경제·환경·문화 등의 협력을 중단할 수 없듯이, 그와 관계없이 전면적 협력을 할 수도 없다. (한겨레, 5월 20일)
- 다. 서울시교육청이 영훈·대원 국제중에 대해 한달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한겨레, 5월 20일)
- 라. 재판장이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 사건 재판에선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주고 다른 사건에선 주지 않는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5월 21일)
- 마.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마저 저버린 종편에 ‘의무전송’ 등의 각종 특혜를 베푸는 것이 과연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 5월 21일)
- 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중 전략대화가 사실상 뜻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매일경제, 5월 24일)
- 사. 장학금 지원 계획 미이행, 교사 채용 부정, 이사장의 학교 회계 관여, 징계권 남용 등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한겨레, 5월 20일)

부정 표현은 대표적인 헤지 표현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부정 표현이 헤지를 유발하는 것은 궁정 표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정은 자연스레 궁정을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부정 표현은 궁정 표현이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내포할 수 있다. 만일 특정 X를 적극적으로 선호하거나 거부하고자 할 때 X에 대한 부정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X에 대한 적극적 판단의 결과는 흐려질 수 있지만 해당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전제와 함축에 따라 연구자의 견해는 소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신명선 2006: 168). 이때 부정 표현은 비판이나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헤지로 작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논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가 문장에서 필자는 단정적 언급 대신 ‘아닐 수 없다’는 이중 부정으로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드러낸다. 장관의 행동이 월권행위라는 해석이 마치 외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 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만저만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진술의 강도는 조금 더 강해졌지만, ‘장관의 발언은 월권이다’라는 진술보다는 훨씬 약한 진술이다. (2)-나, 다, 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존 명사 ‘수’+부정 표현은 필자 자신의

판단이 외부 정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사설이 나간 뒤 있을지도 모를 비판을 피해가 위한 회피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부정 표현은 어조를 누그러뜨리는 것뿐 아니라 긍정 표현보다 더욱 강한 태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2)-라 문장에서 부정 표현은 회피적 태도를 보여주는 다른 부정 표현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2)-라를 ‘(...) 특수 사건 재판에선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주고 다른 사건에선 주지 않는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발언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정문에 ‘밖에 없다’라는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여 어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부정만이 헤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2)-바에서는 ‘사실상’이라는 단어로 정확히 사실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필자의 망설임이 나타나며, ‘다름없다’ 역시 필자의 단정적인 해석을 약화하는 표현이다. (2)-사의 ‘가벼운 일이 아니다’는 ‘무거운 일이다’라는 확실한 진술 대신 사용되어 논지를 약화한다.

(3) 의문형 문장

- 가. 한전은 모든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 전원개발촉진법도 바로 이런 일을 대비한 법률 **아닌가**. (매일경제, 5월 20일)
- 나. 총리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극우성향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 같은 이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일본에만 위안부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망발을 하며 설쳐대는 것 **아닌가**. (한겨레, 5월 20일)
- 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하면 됐을 것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노동계에 양보하라고 하면 누가 그 협상에 응하겠는가. (매일경제, 5월 20일)

질문하기 방식 역시 부정 표현과 비슷하다. 의문형 문장은 표면적인 형태와는 달리 반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면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소극적으로, 은근히 드러나므로 의문형 문장은 헤지 표현으로 가능한

다. 원래 의문형 문장은 격식체 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술 논문과 대통령 취임사 등의 텍스트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사설에서 몇몇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읽기 쉬운 문체를 지향하는 언론사들이 구어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가, 나, 다 모두 의도하는 바와 반대되는 물음을 통해 필자는 자신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한정

- 가. 그러나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권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민부장관사도 다른 재판에선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5월 21일)
- 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5월 21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정 표현은 사설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정을 유발하는 단어들이 대체로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헤지 표현과는 다르게 지나친 모호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격식 문어체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다. 사설에서는 한정 표현으로 ‘거의’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가, 나에서는 ‘거의 없다’, ‘거의 모든’ 형태로 쓰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반례에 대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5) 판단 정도의 조절 ‘우리’

- 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1 부동산 대책과 추경 편성에 한은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조합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 일본 아베노믹스처럼 체감효과를 국민이 못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 조치로 방향성도 엇갈린 탓이다. (매일경제, 5월 24일)
- 나. 이미 쇄신 특위니 뭐니 시간만 끌면서 비리 의원 징계안과 체포동의안, 의원연금 폐지,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법안을 미룬 국회 행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낸더리를 내고 있다. (매일경제, 5월 21일)
- 다. 아베 총리도 역사가 바뀌었다면 이 할머니들이 자신의 고모, 이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다 하면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5월 23일)

라. 입학 비리를 저지른 국체중들은 그런 국민의 순수한 바람을 그저 자기네 돈벌이 발판으로만 써먹은 것이다. (조선일보, 5월 21일)

발언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자는 텍스트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격식체 문어에서는 ‘필자’, ‘본고’, ‘본지’, ‘졸고’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1인칭 주어 ‘나’의 사용을 피하고 논지를 강화한다. 사설에서는 주로 ‘우리’나 ‘국민’ 등의 집단적 주어를 사용한다. 의견을 필자나 해당 언론사의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독자가 포함된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표현해야 듣는 사람에게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가, 나는 필자 자신의 느낌을 전 국민이 함께 느끼는 것으로 객관화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 역시 필자가 가진 반감을 독자를 포함한 ‘우리’로 확장하여 논지를 강화한 문장이다.

2. 명제 내용의 주관화³⁾

진술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발언임을 밝혀 논지를 조절하는 것을 ‘명제 내용의 주관화’라고 칭한다. 특정인은 타인일 수도 있고 필자 자신일 수도 있다. 타인의 의견임을 밝혀 진술을 주관화할 때는 주로 간접 인용 형태가 사용된다. 반면 필자 자신의 생각임을 드러낼 때는 ‘생각하다’, ‘보이다’, ‘바라다’ 등의 동사가 헤지 역할을 한다.

유동엽(2007)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사에는 간접 인용 형태의 주관화 헤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취임사는 대통령 본인의 국정 운영 계획과 방향을 밝히는 것이므로 굳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인용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여 논지를 강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술 논문에서는 간접 인용 형태의 헤지 표현이 매우 활발히 나타나는데, 인용과 필자의 의견을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용이 활발한 텍스트이므로 간접 인용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기도 하다. 신

3) 신명선(2006)은 ‘주체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유동엽(2007)은 명제 내용의 판단이 행위보다는 관점에 가깝다는 점에서 ‘주관화’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문 기사에서도 간접 인용 형태의 해지 표현이 자주 자타나는데 학술 논문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1) 간접 인용

- 가. 최고 5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매일경제, 5월 21일)
- 나. 금융위원회가 밝힌 지원 대상은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이 급등한 시기인 1997~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로, 대상자가 11만명에 이르며 채무금액은 13조2000억원이라고 한다. (매일경제, 5월 21일)
- 다. 한국전력이 주민 반대로 중단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한다. (매일경제, 5월 20일)
- 라. 경찰은 국세청에 이런 수사 결과를 넘기면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겨레, 5월 24일)
- 마. 2004년 전재용씨 소유 채권이 전씨의 비자금으로 드러난 뒤 검찰이 사해 행위 취소소송 등을 거쳐 추징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겨레, 5월 24일)
- 바. 현영철 전 총참모장은 중부 전선을 관할하는 5군단장으로,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은 제1부총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5월 24일)

간접 인용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해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간접 인용은 명제 내용을 필자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 생산자가 명제 내용의 확실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이다(유동엽 2007: 34). 학술 논문에서는 필자 동의의 뜻으로 간접 인용을 사용하므로, 인용은 필자의 소극적인 의견 개진이다(신명선 2006: 164). 하지만 사설에서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인용을 사용하므로 필자의 주장을 위한 해지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언급하는 사실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것임을 밝혀 오보의 책임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1)-가, 나, 다, 라, 마는 모두 ‘-라고 한다’라는 간접 인용 형태로 끝을 맺고 있다. 만약 필자가 경찰, 금융위원회, 한국전력, 검찰 등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했다면 직접 인용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간접 인용을 통해, 독자는 보도된 사실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추

측한다. 전해 들은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으나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 또는 확인이 필요한 소문 등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간접 인용으로 정 보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필자가 위험과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 인용을 헤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문장 역시 ‘알려 졌다’는 피동형 동사를 사용하여 언급하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 주관화

- 가. 통상임금 수준이 높아진 만큼 기업 스스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한겨레, 5월 20일)
- 나.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의미있는 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겨레, 5월 24일)
- 다. 우리 정부도 북한 태도 변화가 인정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화 기회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일경제, 5월 24일)
- 라. 당국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두 학교의 인가를 취소해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기 바란다.
- 마. 정부가 취업 지원 폐기지나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연결해주기로 했는데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매일경제, 5월 22일)

(3) 주관화 헤지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

- 가. 국세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역외 탈세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한겨레, 5월 23일)
- 나. 가정의 필수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고, 석유화학업계를 비롯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면 가스공사의 독점 수입 체제를 그냥 뒤집는 안 된다. (조선일보, 5월 23일)
- 다. 다음 집권 포부를 지닌 야당이라면 이런 문제에 끌어들려면 확실한 대안(代案)부터 찾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조선일보, 5월 22일)

인용과는 반대로 서술하는 내용이 필자 자신의 판단임을 밝힐 때 주관화 헤지라고 한다. ‘바라다’, ‘생각하다’, ‘-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명제 내용을 주관화하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유동엽 2007: 34). 일반적인 의견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필자 자신의 생각으로 진술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2)는 ‘바라다’와 ‘기대하다’라는 동사를 이용해 진술을 주관화

한 예이다. 모두 진술 내용이 필자 자신의 의견임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필자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과도하거나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필자는 주관화를 통해 독자의 감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예시 문장은 모두 기업과 정부에 대한 것인데, 명령이나 충고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관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헤지가 공손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설에서 주관화 헤지 표현은 인용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시 (2)보다 (3)과 같은 문장이 훨씬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주관화 헤지 표현은 사설의 끝 무렵 조언이나 충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설 마지막 부분에는 ‘-야 한다’ 형을 사용해 당위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설이 해당 신문사의 주장을 담은 글이므로 굳이 주관화 헤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두었으므로 필자는 마지막 주장까지 논지를 약화하거나 공손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사설을 전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오보, 당사자의 의도 오판 가능성 때문에 헤지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만, 주장과 방향성 제시는 헤지 사용의 동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사는 대통령 자신의 국정 운영 계획과 바람직한 국가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관화 장치가 자주 나타난다. 반면 학술 텍스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여 필자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관화 표현보다는 간접 인용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관화 헤지로만 판단했을 때, 사설은 학술 논문과 더 가깝다.

한편 유동엽(2007: 35-36)은 주관화 헤지가 생산자의 논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술 텍스트는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학술 텍스트에서 판단이 주관적임을 드러내는 것은 책임에 대한 회피일 수 있다. 반면 텍스트가 이미 주관적이라면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은 논지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를 통해 드러난 사설 속 주관화 표현은 대체로 공손 전략을 위해 사용된 것이어서 대통령 취임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설은 연설문보다는 객관적인 텍스트 이므로 주관성을 드러낸다고 해서 논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

다. 즉 주관적 텍스트에 주관성을 일부러 드러낸 것이지만, 논지 강화보다는 공손 전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3. 수행성 약화

수행성 약화는 요청, 충고, 촉구를 위한 표현을 약화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수행성 약화를 위한 헤지 표현 역시 사설 말미에서 주로 나타난다.

(1) 수행성 약화

- 가. 기업도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5월 20일)
- 나.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아베 일본'과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5월 20일)
- 다. 두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중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겨레, 5월 20일)
- 라. 우리 교육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뒤에도 국제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국공립으로 전환해 제대로 된 운용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 5월 20일)
- 마. 대법원, '통상임금' 혼란 정리할 새 기준 제시 필요하다. (조선일보, 5월 24일)
- 바. 재외공관이 수출과 투자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영사업무로 벌을 구르는 민원인을 얼마나 성심껏 도와주는지 불시에 감찰할 필요도 있다. (매일경제, 5월 23일)
- 사. 여야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문진 이사를 포함해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 5월 22일)
- 아. 당사자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는 별개로 법에 의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한겨레, 5월 21일)

(1)의 예는 모두 기업, 정부에 특정한 행동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가, 나는 요구를 의무와 추측을 나타내는 '-야 할 것이다'로 바꾸어 표현했다. 다 문장은 '요구되다'라는 파동 표현을 사용하여 외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처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라는 자신의 주장을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는 학술 텍스트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헤지 표현으로, 사설에서도 (1)-라, 마, 바, 사, 아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예시 문장 모두 추측, 피동, 필요 등으로 필자의 논지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논문에서는 주로 필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사용되었다(신명선 2006: 170). 사설에서는 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자, 이해당사자의 행동을 요청하는 끝맺음 부분에서 자주 드러난다.

(2) 요청 화행의 ‘우리’

- 가.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한겨레, 5월 24일)

사설에서 ‘우리’, ‘국민’과 같은 집단 명사는 주로 객관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명사가 요청화행에서 사용되는 경우, 수용자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를 바꾸는 것으로 의사소통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2)-가에서 필자는 굳이 자신까지 포함해 ‘우리’에게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가 문장은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우리’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필자 역시 행동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이미 필자는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행성 완화 헤지로서 필자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엽(2007)은 ‘우리’ 사용을 수행성 완화 헤지로 분류했다. 굳이 필자 자신까지 포함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것은 행동을 요청 받았을 때 수용자가 느낄 수 있는 불쾌함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의 일환이다(유동엽 2007: 38).

IV. 신문 사설 속 헤지 사용의 의미

사설에서 헤지 표현은 글의 순서, 위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글의 도입부에서는 사실 전달을 위한 판단의 정도 조절, 간접 인용 등의 헤지 표

현이 주로 사용된다. 우선 간접 인용이 주로 쓰여 직접 인용과 함께 사건의 발생, 경과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후 가능성과 추측을 드러내는 헤지 표현이 나타나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필자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드러난다. 이후 필자는 자신의 논리에 맞춰 이해당사자에게 의무를 상기시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요구, 촉구한다. 수행성 완화는 주로 사설 마지막 무렵 나타나 공손전략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문 사설에서 헤지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사설이 일종의 논설문으로서 독자를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에서 필자는 독자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이들의 체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야 한다. 보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려면 단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어조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헤지는 글쓴이가 주장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가능하므로 사설에서 필수적이다.

흔히 사설은 논설문으로 분류되나 신문에 실리는 글이라는 점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의 일종이기도 하다. 사설을 평가하는 데는 주장의 타당성이 상당한 근거가 되지만, 객관성 역시 신문 사설에서는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사설 관계에 문제가 없고 근거가 정확해야 논지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추측과 사실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서 헤지 표현은 큰 역할을 한다. 특히 간접 인용이나 한정은 언론사가 발언의 책임을 덜고 회피할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객관성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헤지는 사설에서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의 일환이며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사설에 나타나는 헤지 표현을 살펴보면, 학술텍스트와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측, 인용, 객관화 등 주로 논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헤지 표현이 더 자주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사설은 개별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학술 텍스트보다는 주관성이 강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만 의존하면 특정 현상에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며, 독자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용, 객관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주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단정적인 어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헤지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헤지가 사용된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에 비해 서술부가 길고 간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사, 관형사 형태 헤지 표현은 사설과 같은 격식체 문어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설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헤지는 ‘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등의 동사+종결어미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몇몇 표현은 번역체로서 한국어답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신문은 모범적인 한국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귀감이 되어야 한다. 기자는 읽기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사실을 보도할 책임이 있다. 과도한 헤지 사용은 독자를 배려하는, 올바르고 쉬운 한국어 사용이라는 공적 목표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손함 표현, 논지 강화 혹은 약화, 객관성 부여, 정확한 진술 전달 등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헤지가 사설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

V. 연구의 한계 및 결론

본고에서는 신문 사설에 드러나는 헤지 표현을 통해 헤지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고, 헤지 사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헤지를 분류하였다. 헤지는 필자나 화자가 의도에 따라 명제의 진리치를 조절하는 언어적 장치로서, 명제의 진리치를 약화하는 작용을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논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헤지 표현은 명제 그 자체의 진리치를 조절하거나 명제에 화자의 판단, 생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헤지 사용의 동기는 ① 판단의 정도 조절, ② 명제 내용 주관화, ③ 수행 완화의 세 가지가 꼽힌다. 실제 사설에서 나타난 헤지 표현을 사용 동기에 따라 분류한 결과 ① 판단의 정도 조절에 해당하는 헤지로는 (1) 가능성과 추측, (2) 부정 표현, (3) 의문형 문장, (4) 한정, (5) ‘우리’의 사용 등이 관찰되었다. ① 판단의 정도 조절은 신문 사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혜지 표현이다. 이때 혜지는 필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② 명제 내용 주관화에는 내용이 타인의 의견임을 드러내는 (1) 간접 인용, 필자 자신의 의견임을 드러내는 (2) 주관화 등이 있었다. 간접 인용의 경우 특히 학술 논문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혜지 표현으로, 객관성을 높이고 오류의 위험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주관화는 대통령 취임사와 같이 특정인의 의견임이 분명한 텍스트에서 자주 쓰인다. 사설은 일반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이 두드러져 주관화 혜지는 많지 않았다.

③ 수행성 완화는 요청을 의무, 필요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으로 사설 말미에 자주 나타나며, 특히 ‘-가 필요하다’ 형태가 많이 관찰되었다. ‘우리’, ‘국민’과 같은 객관화 명사가 요청화행에 쓰일 때도 수행성 완화 혜지로 분류된다. 필자가 행동의 주체로 포함되어, 독자의 감정을 배려하고 논지를 약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설에 나타난 혜지는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논지를 조절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단정적인 어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혜지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학술 논문, 대통령 취임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했다. 비슷한 연구가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있었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스트레이트 기사, 피처 기사 등 다른 형태의 신문 기사와 사설의 혜지 표현을 함께 비교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길이와 어절을 고려해 혜지 등장의 빈도를 계량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주일 동안 나온 사설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계량화 부분이 빠진 점은 본고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참고문헌

- 박종화(2003), 『미디어 문장과 취재 방법론』, 한울 아카데미.
- 신명선(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호, 배달말학회, pp. 151-181.
- 신명선·박재영 공저(2004), 『신문 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미디어연구소.
- 신영주(2011), 「한국어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중국어 학습자 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동엽(2007), 「대통령 취임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석사 논문.
- 이준호(2012), 「학술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중언어 학』 49호, 이중언어학회, pp. 269-297.
- Brown, P. and Levinson, S.,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 Hyland, K., *Hedging in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1998.
- Lakoff, G.,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pp. 458-508, 1973.

[부록] 인용된 신문사별 사설 목록

(1) 조선일보

날짜	사설 제목
2013년 5월 20일 (월)	北, 대화 제의에 미사일로 대답하며 뭘 얻겠나 5·18 기념식 파행이 일깨워준 국민통합 긴급 과제 공무원들에 맡겼더니 알맹이 다 빼버린 ‘청탁금지법’
2013년 5월 21일 (화)	아베의 케변, “야스쿠니 참배는 美 국립묘지 참배와 같다” 일반 재판서도 보안법 재판처럼 방청객에 발언권 줬나 이런 국제中으로 글로벌 인재 길라밸 수 있겠는가
2013년 5월 22일 (수)	가스공사 2배 이상 비싸게 LNG 수입해 가스 값 올랐다 밀양 송전선, ‘제주 해군기지’ 꼴 만들지 말라 '延命 치료 중단'에 관한 合意 이룰 때
2013년 5월 23일 (목)	中, 北 특사 訪中 동북아 불안 해소 계기로 삼아야 유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汚名 씌우지 말라” 조세 파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운 대기업 총수들
2013년 5월 24일 (금)	어지러운 북한군 인사, 잘 살펴야 할 때 대법원, ‘통상임금’ 혼란 정리할 새 기준 제시 필요하다 교원 평가제 입법화해 더 이상 소란 없게 만들어야
2013년 5월 25일 (토)	시진핑·北 “북핵 회담 재개”, 비핵화 기회 되려면 시간제 공공 근로자 5만 채용이 正答 될 수 있을까 공기업 LH 정문 시설 뜯어낸 성남市의 못난 행동

(2) 한겨레

날짜	사설 제목
2013년 5월 20일 (월)	‘반쪽짜리 5·18 기념식’과 국민대통합 국정원 정치공작, 검찰 수사력 총동원해 과혜쳐야 개성공단 시설점검 위한 방북 허용해야
2013년 5월 21일 (화)	역사 부정의 극치 보여준 아베의 야스쿠니 인식 영훈·대원 인가 취소하고, 국제중 전면 재검토해야 진정성 없는 정부의 통상임금 대화 제의
2013년 5월 22일 (수)	‘5·18 북한군 개입’ 보도, 그냥 넘길 수 없다 국정원 ‘정치공작’에 대한 청와대 침묵은 수사방해

	외환위기 신용회복 지원 실효성 있게 해야
2013년 5월 23일 (목)	‘김재철 체제 연장’ 확인한 문화방송 인사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근본 해법 찾아야 빙산의 일각 드러난 역외 탈세 의혹
2013년 5월 24일 (금)	국면 바꾸려는 북한, ‘진지한 대화’로 발전시켜야 민주주의 위협하는 종편, 이대로 뒤선 안 돼 전두환 숨긴 재산 찾기에 관심과 참여를
2013년 5월 25일 (토)	6자회담 등 대화 재개 동력 키워나가야 안철수, 새 정치의 알맹이 보여주길 한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할 이재현 회장 비자금

(3) 매일경제

날짜	사설 제목
2013년 5월 20일 (월)	‘한강의 기적’ 남덕우 前총리를 기리며 北은 개성공단 문제 솔직화법으로 말하라 韓日 경제성장을 역전 위기, 부자들 돈쓰게 해야 밀양 송전탑 이제 건설 강행이 쓸이다
2013년 5월 21일 (화)	고용부는 제대로 된 통상임금 기준 제시해보라 저금리 시대 은행 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 의원연금 폐지, 경제민주화法보다 우선 처리를
2013년 5월 22일 (수)	국제중 유지하려면 3가지 요건 충족해야 신용사면 참뜻은 자활의지 살리는 데 있다 행복주택, 보금자리 같은 시행착오 없으려면
2013년 5월 23일 (목)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성공 수출길도 열어보라 대사관 국회의원 척사대접부터 금지해야 조세피난처에 비밀계좌 숨겨둔 한국인 245명
2013년 5월 24일 (금)	南北관계 새로 설정할 채널 적극 활용해야 경제지표들 줄줄이 하향, 취임 100일 고삐 조여라 편의점주 잇단 자살, 공정위 出店 기준 다시 만들길
2013년 5월 25일 (토)	공공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책임자 문책하라 아베노믹스 불안 확산, 한국 후폭풍 대비할 때